

문제 1

1. 비교는 일단 완벽합니다. 수정부분 없구요.

2. 하지만 대응에서 아쉬운게, 제시문 (다)는 두 부분, 원근단축과 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시문 (가)로 2가지 대응, (나)로 두 가지 총 4개의 대응이 서술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그 부분을 제외하면 모두 완벽합니다.

형식상에서 이 부분이 제일 아쉽네요.

문제 2

1. 지금 제시문 (라)를 기반하여 심사 과정을 설계하려는 노력은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표에서 얻어낸 결론이 잘못되어 심사 과정또한 잘못 설계 되었습니다.

2. “35초는 13초의 약 3배에 해당하는 시간이지만 13초에 비해 3배의 정확도를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짧은 시간에 지원자의 면면을 확인 할 수 있는 정량화된 기록이나 점수, 자격증을 확인하는 방안이 효율적이다.”/ “제시문 (다)의 실험 결과를 보면 초당 정확도는 13초일 때 가장 효율적이기는 했지만 객관적으로 35초, 122초의 정확도에는 한참 못 미치는 결과가 나왔다. 물론 35초와 122초의 결과는 큰 차이가 없었다. 이를 통해 시간을 적당히 길게, 그리고 모든 지원자의 면접시간은 공평하게 같은 시간을 배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같은 부분인데요, 지금 중요한 것은 ‘효율적으로 선발하기 위해’ ‘어떤 기준을’ 사용해야 하는가 입니다. 따라서 (라)의 결과를 통해 희미한 정도와, 시간 정도 중 어떤 기준을 사용해야 하고 이로부터 얻어 낸 결론이 면접과 서류 중 중시 해야되는 것에 대한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3. 하지만 위에서 보여지듯이, 기준에 대한 논리가 아닌 표에 내용 자체에 집착하였으며 근거된 내용에서 시간에 대한 기준만 사용했을 뿐 최초 공개시 희미한 정도라는 기준은 사용하지 않아 부적합한 근거 서술입니다.

4. 따라서 표에대한 잘못된 해석으로 얻어낸 결과이므로 좋은 답이 되기 어렵습니다.